

## 제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강연

### 제7차 가정과 교육과정의 방향 모색

김 경 애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를 주도할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 목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추므로써 학생이 학습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은 그 과정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 총론 구성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자기 주도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① 기본적인 인성 발달과 기초 학력의 충실화
  - ② 창의성과 정보 능력의 배양
  - ③ 정보화·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 ④ 21세기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외의 조정
2. 교육과정 편제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한다.
  - ①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도입
  - ②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③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3.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추구한다.

- ① 학교와 학생의 재량 시간 확보
- ②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상의 조정 기능 강화
- ③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4. 교과 내용의 양을 최적화하고, 학생의 이수 과목수를 줄여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되게 한다.
  - ① 국민 공통 10개 교과 체제를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적용함으로써 교과목 축소
  - ②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이수 과목수의 과다 지양
  - ③ 교과별 최소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교과 내용 정선
5.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 ① 교과별 성취 기준 설정
- ② 국가 수준의 주기적인 학력 평가 체제 확립
- ③ 모든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평가 체제 도입

초·중등학교 가정 교과의 성격과 교육개혁의 취지에 따라 가정 교과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정과 교육의 방향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7차 가정과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표(학년통합, 연간 34주 기준, 주당시수)

학 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12	
			K	1	2	3	4	5	6	7	8	9		10
구 분	교 과 시 간	국어 도덕 사회 (I교과군)	언어생활	국어 6 6	12	40%	10	36%	12	33%	4	33%	선 택 과 목	
			사회생활	바른생활 2 2	2	5	2	6	4	9	1	4		(국사) <sup>1,5</sup>
		탐구생활	슬기로운 생활	4 4	5	30%	6	33%	9	34%	3	37%		
			수학	4 4	6	2	3	6	3	8	4	3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III교과군)	건강생활 표현생활	즐거워 생활	6 6	5	26%	6	27%	7	21%	2	17%		
		외국어 (영어) (IV교과군)		2	4%	2	4%	9	12%	4	13%			
	교과 최소수업시수의 합 교과군내여유수업시수			44	45	5	47	5	75	6	27	3		
	교과군최소수업시수의 합 교과군간여유수업시수 교과 총수업시수			22 ② 24	22 ② 24	25 ② 27	25 ② 27	26 ② 28	26 ② 28	27 ② 29	27 ② 29	27 ② 29	30 ② 32	
	특별(클럽)활동		.	1	1	1	2	2	2	2	2	2	2	
	재량 시간		.	1	1	2	2	2	2	3	3	3	2	8 (단위)
연간수업시수		180분 % 180일	26	26	30	31	32	32	34	34	34	36	144 (단위)	

II. 가정 교과 교육의 초점

학교 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나아가 가

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며,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양 교육적 성격과 직업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과 교육은 개인, 가정, 사회 발전에 대한 목표를 지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배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정과 교육내의 가장 큰 내적 요인은 인간에 역점을 둔 교육이 아니라 가정생활 자체나 물질적, 물리적 성질에 역점을 둔 기능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 가정과 교육의 대상은 인간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옷감의 성질, 식품의 종류, 주거의 기능 등과 같은 물리적인 것에 많은 역점을 두어 온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의 초점은 합리적인 가정생활의 운영이라는 기능성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이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하면 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가정 교과에서 말하는 환경은 다른 학문에서 논의되는 환경과 달리 가정생활 그 자체를 인간 중심적 환경으로 이해하여 인간에게 초점을 둘 때만이 왜 우리가 옷감의 성질이나 식품의 종류, 주거의 기능과 같은 것을 이해하여야만 하는가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III. 가정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

가정 교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의 동향에 맞는 가정 교과 목표가 설정되고 교사는 가정 교육의 철학을 갖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창의력에 의해 교육 방법, 교육내용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 1. 가정 교과 교육 목표

교육과정 2000총론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가정 교과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한 것은 가정 교과의 교양적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의 심성은 바로 자신, 인간, 물질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가정 교과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된다.

인간은 가정생활 안에서 의사소통이라는 매체를 통해 상호적 관계들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자신의 실체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물질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게 된다. 둘째,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는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병폐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할 관계이다. 가정에서 인간과 인간이 성숙한 관계를 맺을 때,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고무시키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고가 일어나는 환경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를 통한 가정생활은 가정과 교육의 주요 영역인 의, 식, 주 생활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물질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즉, 자신에게 어울리는 식품을 잘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식품과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며, 가정에서 편안하게 느낄 때 주거 환경과 자신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예로 설명된다. 이렇게 개인이 가정생활 안에서 세 가지 차원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가정과 교육 목표의 인식이 뚜렷할 때 수월성을 지향하는 21세기 교육개혁의 추진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 2.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통합화와 다양화

미래 정보화·세계화 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역할이 증대되므로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국민 공통기본 교과목의 수를 줄이고 학생의 진로 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정을 강화한다. 단위학교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학습자, 자원, 지역사회, 철학, 각 영역에 대한 지식, 현대사회, 교육심리 등)에 따라 구상하여 계획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이 요망된다. 즉 식생활영역에서 학습한 영양지식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습득되어서는 안되며 조리방법의 학습에 통합되어 합리적인 조리방법을 실천하는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양지식은 곧 학생자신의 실생활향상의 동기로 작용하고,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습득한 지식이나 이론은 곧 학생의 태도를 바꾸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 교과 교육과정이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가정 교과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상에 제시된 기술·가정 교과는 각 교과서 성격상 통합이 불가능하므로 독립된 교과로 존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편제상 기술·가정 교과가 통합해야할 경우 적절한 명칭이 없으므로 그 명칭을 가정·기술로 표기하고, 추후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통합을 위한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야만 병행형태가 아닌 통합된 가정·기술 교과가 정당성을 가지며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 3.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급변하는 현대 사회와 증가하는 지식,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는 교육이 되려면 그 교과 내용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 교과는 가정학을 근거하여 관련 지식을 통합하고 실제 생활에서 응용·실천이 강조되고 있고 체험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과 가정생활의 관계를 이해하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은 교양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체험적인 학습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을 길러 주려면 더욱 더 학생 활동 중심의 탐구학습, 실험·실습, 현장 체험학습 및 전학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의 능력은 각자가 겪어 온 경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정교과의 학습 능력은 다른 교과와는 달리 학습자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 현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이러한 능력이 개발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수·학습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실험, 실습, 토론, 가정실천학습, 창의적인 문제해결 학습,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4. 가정과 학습 평가 방법의 다양화

가정교과 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보다는 실생활에의 적용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방법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가정 교과 교육평가는 주로 인지적 영역의 지필 평가 중심이었다. 원리를 평가하는 지필 평가도 필요하지만 토론, 실험·실습 중심의 교수·학습 등의 평가과정을 다양하게 하는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 교과 내용의 특성에 맞게 단순한 지필 검사위주의 평가방법에서 종합적인 문제해결, 창조력 등의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정교과의 실험·실습 교수·학습에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의 조건을 갖춘 단계별(학습 준비, 학습 전개 과정, 학습 결과)평가 기준안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사전에 제시해 줌으로서 가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적용할 기능을 제대로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평가 방법의 개발이 요망된다.

## IV. 가정 교과 교육의 지원체제 및 제언

1. 교육개혁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안에 제시된 기술·가정 교과는 성격상 통합이 불가능하므로 각각 독립된 교과로 시정되어야 한다.

각기 다른 학문을 근거로 하는 기술 교과와 가정 교과를 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두 교과의 내용 구성에 연계성과 체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교과를 기술 교과와 통합시킨 것은 가정을 한낱 생활기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가사를 처리하는 곳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의 소치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의 통합교과로서의 불가능함을 충분히 공감하여 가정과 기술이 독립교과로 분리하여 실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모순된 교육과정 편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자의 교과 부담을 줄이는 취지는 공감되나 교과 운영면에서나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편제상 기술·가정 교과가 분리될 수 없다면 각각 독립 과목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마땅하다.

2.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교육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는 가정의 기능

가정은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필수적인 생명유지 체계이며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고유한 생산성을 가진 체계이다.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매개적 체계로서 개인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가정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 기능이 사회의 제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는 가정의 기능은 모든 「삶」의 기본을 훈련하는 인간육성의 기능과 생존과 생활을 위한 소비생활의 기능, 건강한 인간관계를 수련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이 제대로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가정은 균형을 잃게 되고 그 속에 개인은 방향 감각을 잃게 되며 사회는 온통 혼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 나) 정보화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정의 기능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기술과 정보망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늘고, 근무 시간이나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무나, 교대제 근무, 자유시간제, 자유직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과 기업체의 근무형태가 신속성 있게 변화되며 가정과 일터가 통합되고 남성들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간의 균형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남녀학생에게도 필수적으로 가정 교과를 이수함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정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듯이, 컴퓨터와 기계가 자동화할 수 없는 가족관계와 유대, 가족 돌보기의 차원은 여전히 가정의 역할로 남게 된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세대간에 그리고 부모자녀 간에 정서적 유대와 일체감을 경험하는 일은 다른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가정의 더욱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 다)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하는 패륜범죄, 가정폭력, 이혼율급증, 노인들의 비관자살, 학원폭력, 청소년 범죄 등의 심각한 가정문제는 단순한 개별가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가정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개별가정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은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한 전문지식과 이러한 지식이 내면화되어 가정생활의 운영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기능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행 초·중·고등학교에는 여러 교과가 있지만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적 기능습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과는 가정교과목이다. 즉 가정과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의·식·주·가족·소비생활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키게 됨으로써 바른 가정과 사회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가정 교과 내용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토론, 사례연구, 현장연구, 역할극, 문제해결학습, 실험실습과 같은 체험적 학습이 요구된다. 이러한 체험적 학습방법만이 가정교과의 실천적, 응용적, 통합적 특성을 살릴 수 있어서 이를 통하여 학생의 건전한 인성발달이나 창의력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7차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배당으로는 위와 같은 체험적 교수방법의 적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흥미를 잃게 되고 이러한 흥미상실은 과목성격 자체를 왜곡시키게 된다. 6차 교육과정 실시 중 시간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효율적 교육이 실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편제상에 배당된 시간이 증가되어야 한다.

### 3. 가정과 교사 양성체제 개선

교육의 질은 교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정과 교사 양성체제는 가정과 관련학과인 가정교육학과, 가정학과, 농가정학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이 가정과 교사자격증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교과목(현재는 식품영양, 가정경영, 피복학, 주거학 등)만 이수하면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개혁안은 현재까지의 교사 양성 체제의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교사 양성체제는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복수전공 제도를 활성화하여 복수전공 교사 등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러한 체제로 교사를 양성하게 된다면 각 교과에의 전문성은 사실상 대학 교육차원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도에 부응하여 가정학의 학문적 체계에 근거한 내용 중심에서 교과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식품과 조리학, 영양학, 의복관리, 의복 디자인 및 구성, 주거학, 가정관리, 소비자학, 가족학, 인간발달 등 외에 가정과 교육론, 가정과 교수방법, 가정과 교육과정, 가정과 교재 연구, 가정과 교육평가, 가정과 교육 연구 방법 등 가정 교과 교육의 비중이 교사 교육에서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은 가정 교육 전문가에 의해 교육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한국교육개발연구원(1996) : 교육과정 2000 총론안, 제 7차 교육 과정 심의자료  
 김경애(1996) :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추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p97-102  
 김경애(1996) : 21세기를 위한 가정과 교육의 방향,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p102-106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홍보자료(1996) : 교육개혁을 위한 제언 -가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명희(1995) : 가정 교사 양성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  
 유태명(1992) : 교육과정의 국제적 비교,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제 4차 학술대회 자료